

★강조

★강조

1.

(날 가질려면 가지세요... 당신은 내 목숨의 은인이니까요..아니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성관계는 진실하지 않아요.. 당신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떡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애길까?

2.

환기

12월 초에 이곳저곳에 붙었던 한 자보가 있었다. 제목이 '내 몸은 내 것이다'였지, 아마? 학내 성폭력에 대해서 들을 만큼 들었던 진부한 얘기들이라 생각이 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대부분의 여학우들이 현실을 알고 고통받으면서도 소리내지 못하는 것은 학내 성폭력의 가해자들의 암묵적, 또는 명시적 권력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말했다) 특히 우리가 주목했던 부분은 교수와 강사들이 학점과 대학원 과정에서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저지른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언어 폭력도 '물론' 포함된다. 왜냐하면 성폭력이란 강간 뿐만 아니라 추행, 성희롱, 성기 노출등 성을 매개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언어적 성폭력이란 말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에게 누군가가 특히 당신보다 힘을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인간이 일상적으로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라. 그것이 당신에게 폭력이라고 느끼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수차례 했던 얘이지만 대학에서의 성폭력은 대학이 '고고한 상아탑'이라는, 마치 사회에서 외따로 떨어져 홀로 존재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어 오히려 묻히는 실정이다. 글세, 연세대학교라고 해서 다를까?

3.

★강조

자, 이제 처음 했던 얘기로 되돌아가자. 어느 교수가 그런 말을 했더라. 눈앞의 여자를 떡으로 비유하는. 그 이후에도 수차례 민망한 얘기를 자신이 마치 성에 대해 아주 자유로운 인간인 양 떠들더라. 누가 거기에 불쾌하다고 해서 손들고 항의할 수 있겠는가? 안 그래도 학점이 상대평가제로 바뀐 마당에 미운털 박히는 것에 초연할 이가 있을리 없다. 하지만 수업을 듣던 학생중 용감한 한 사람이 제보를 하였고 그래서 '교수 성폭력 근절과 여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났다. 이런 문제를 더 이상 쉬쉬하면서 숨길 것이 아니라 폭력의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건들을 해결해야겠다고 의지를 모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었고 학교 당국에도 이런 문제를 작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 당국이 이런 종류의 문제에 대해 언제나 학교의 명예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일을 처리하는 것이 정석이 되어 왔다. 특히 강사들이 이런 문제를 저질렀을 경우 예외가 없었다. 사실 진정으로 학교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그 시각에서도 분개할 만한 일이 아닌가? 그런 신사답지 못한(연세대학교 남성들이 스스로 신사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들은 고려대 남성들이 이화여대에서 집단 난동을 부리자 이대 여학생들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가슴아파했으며 언제나 다른 학교 남성들에 비추어 자신들이 얼마나 멋과 낭만을 아는지 자랑스러워하지 않는가?) 학교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을 하다니. 그러나 그 누구도 그런 식으로조차도 분개하지 않는다. 그저 잘못 안 거 아니냐고 되물어보고 수치심을 자극할 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한국의 가부장제는 심지어 그냥 '가부장제'도 아니고 아주 '폭력적인 가부장제'임을 말이다.

4.

94년 6월 K대 미술공학과 교수 성추행 사건, 94년 6월 H대 교수 성추행 사건(결국 교수직을 사퇴했다고 한다.), 94년 신정휴 교수 사건(우조교 성희롱 사건으로 더욱 유명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사건에서 가해자의 이름을 부각시키려 한다. 왜 성폭력 사건에서는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부각되는 것일까?), 96년 S대 강사 성추행 사건, 96년 동국대 강사 술집 성추행 사건, 96년 11월 부산교대 체육학과 산행사건... 도대체 끝이 없다. 성폭력 박물관을 만들어도 될 정도다. 이제 교수 성폭력 근절과 여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일상이 되어 버린 학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사례 수집 및 피해자의 이름으로 이에 맞설 것이며, 궁극적으로 학칙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성폭력 발생시마다 힘을 소진하며 한 사건씩 해결해 나가는 것보다 이를 담아놓은 학칙이 있다면 피해자가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얘기는 계속될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한.중.영.법.대.리.학.

성폭력 제로

한.중.영.법.대.리.학.

너무 강행

한.중.영.법.대.리.학.

한.중.영.법.대.리.학.

한.중.영.법.대.리.학.

한.중.영.법.대.리.학.